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3

[중국/홍콩]
박수진
soojin.park.a@miraeasset.com

보이는 차이나

2026년 양회 전망과 투자 시사점

- 2026년 양회는 '15.5규획 (5개년 계획)' 출발 원년으로, 단기 부양보다 내수 중심 성장 전환과 신품질생산력 육성을 통한 구조 개편 방향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
- 재정·통화 정책은 선별적·구조적 대응에 무게가 실리며, 정책은 AI·반도체·첨단 제조·서비스 고도화 등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
- 중국·홍콩 지수 전반 상승보다는 구조적 성장 산업 중심의 차별화 흐름이 예상. 특히 AI 관련 테크 업종은 정책 방향성,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실적 개선, 글로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해 비중 확대 전략 유효

2026년 중국 양회(3/4 정협, 3/5 전인대) 개최가 임박했다. 양회는 매년 반복되는 정치 이벤트라는 점에서 개최 전후로 시장의 기대와 실망이 교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거시정책 방향과 산업 전략, 재정·통화 운용 기조를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책 기준점이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 변동성, 미중 정상회담 등을 앞둔 대외 환경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 제시될 정책 방향과 메시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15.5 규획'의 출발 원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 모델과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시점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자립 강화, 내수 기반 확충 등 중장기 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 여부를 넘어, 성장 방식의 전환 방향을 공식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된다.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 리스크가 상시화된 환경 속에서 산업 체계의 안정성과 자립 역량 제고가 핵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가 병존하는 구조적 불균형, 소비 회복 지연,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6년 양회는 GDP·CPI·재정적자율 등 연간 거시 목표와 함께, 과학기술 자립,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산업 육성,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내수 주도 성장 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그래도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확대'

2026년 양회에서 '내수 확대'는 단순한 소비 부양을 넘어 성장 구조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처럼 쿠폰·보조금 중심의 단기 수요 자극이 아니라, 소득 기반 강화와 서비스 소비 확대, 산업 고도화와 연계된 신규 수요 창출 등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강조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투자'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 주도의 자립적 성장 체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다. 향후 5년간 내수 중심 성장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일시적인 소비 진작보다 소득 구조 개선, 서비스 소비 확대, 산업 고도화와 연계된 신규 수요 창출 등 수요 기반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이 보다 분명히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소비 부진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다. 단순한 소비 심리 회복을 넘어, 소득 분배 구조 개선과 노동 보수 비중 확대, 중산층 확대 전략 등 가계의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의 고도화 역시 핵심이다. AI·스마트 소비·고품질 브랜드 육성 등 신형 소비 생태계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료·관광·문화·양로 등 서비스 소비 비중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병행될 전망이다. 이는 제조 중심 성장에서 서비스·경험 중심 경제로의 점진적 이동을 의미하며, 내수 확대의 산업적 수혜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중대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 하방 지지와 함께, 소비와 투자가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 형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수요 확대가 생산과 투자를 자극하고, 산업 혁신과 공급 고도화가 다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정책 기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26년 양회에서의 내수 확대는 단기 부양책 발표 여부보다, 소비와 투자 기반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구조 개혁을 얼마나 일관되게 추진할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어디에 형성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재정·통화 정책 방향: 강한 부양보다 '선별적·구조적 대응'

2026년 양회에서의 재정·통화 정책은 시장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강한 전면 부양 기조보다는, 구조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의 선별적 대응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 시행"하되 "필요한 재정 적자와 부채 총규모, 지출 총량을 유지"하겠다는 기조에서도 확인된다. 즉, 확장적 방향은 유지하되, 무제한적 확대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운용이 기본 전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에도 초장기 특별국채 및 관련 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 집행 속도를 앞당겨 경기 하방을 완충하는 전략이 유력하다. 다만 재정이 투입되는 영역은 전통적 중심 인프라가 아니라, 전략 산업,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서비스 소비 등 구조 전환과 연계된 분야에 보다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 성장률을 방어하는 동시에, 재정 지출을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육성에 연결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화 정책 역시 '대규모 완화'보다는 점진적·유연한 조정이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역시 금리·지준율 조정을 통해 완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으나, 환율 안정과 자본 유출 관리라는 제약을 감안할 때 급격한 정책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은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2026년 양회의 재정·통화 정책은 경기 부양의 강도보다 정책의 방향성과 자금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유동성 확대보다는 산업 구조 재편과 신성장 동력 육성을 뒷받침하는 정밀 조정 기조가 보다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품질생산력(新质生产力) 강조

최근 2년간 중국 정책 담론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된 키워드는 단연 '신품질생산력'이다. 2026년 양회는 이 개념이 구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산업 정책과 실행 로드맵으로 정착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15.5 규획' 출발 원년이라는 점에서, 신품질생산력이 국가 중장기 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명확히 자리 잡을지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는 단순히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질적 업그레이드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개념이다.

산업 측면에서 신품질생산력의 구체화 여부는 특정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 강도와 자원 배분 방향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디지털 기술과 실물 제조가 결합되는 대표적 분야로, 생산성 혁신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I 인프라 확충, 산업 현장 적용 확대, 로봇 상용화 지원 정책 등이 병행될 경우 이는 신품질생산력이 실제 산업 전환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반도체와 첨단 제조 분야 역시 중요한 바로미터다.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자립이 국가 전략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핵심 공정 고도화, 장비·소재 국산화, 고부가가치 제조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체계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성과 직결된다.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분류되는 신에너지, 첨단 소재 등도 구조적 성장 축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조합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제조 기반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 산업 등 미래 산업 영역은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적 명확성과 실행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신품질생산력이 단순한 개념적 슬로건이 아니라 향후 5년간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실질적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정책 수단 역시 기존의 기초 연구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 육성, R&D 세제 혜택 확대, 산업 펀드 조성,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확충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로 정교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기술–자본–인재의 연계 구조 강화가 병행될 경우, '개념'이 아닌 '실행' 단계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2025년이 개념 정립과 방향 설정의 해였다면, 2026년은 신품질생산력이 실제 산업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 산업 전략의 투자 프레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양회를 통한 투자 시사점은?

2026년 양회는 전면적 유동성 랠리를 촉발하는 이벤트라기보다, 정책 자원이 집중되는 산업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수 전반의 상승보다는 신품질생산력과 연계된 전략 산업 중심의 차별화 흐름이 예상된다.

AI, 반도체, 첨단 제조, 디지털 인프라, 고부가 서비스 등 구조적 성장 영역은 정책 연속성과 중장기 지원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국·홍콩 테크 섹터의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여전히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으로, 정책 가시성과 실적 개선이 맞물릴 경우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양회는 정책 방향성과 산업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핵심 섹터인 AI, 반도체, 첨단 제조(휴머노이드 등),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소비 등에 대한 전략적 비중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변동성 국면을 활용해 구조적 성장 산업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기적 관점에서 보다 유효한 투자 대안이 될 전망이다.

표 1. 과거 3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주요 지표 및 제시 목표

지표	2026년 (예상)	2025년	2024년	2023년
실질 GDP 성장률	4.5~5% 내외 (예상)	5% 내외	5% 내외	5% 내외
CPI	2% 내외 (예상)	2% 내외	3% 내외	3% 내외
도시 신규 취업 (만 명)		1,200만 명 이상	1,200만 명 이상	1,200만 명 내외
도시 실업률		5.5% 내외	5.5% 내외	5.5% 내외
재정정책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 시행 필요한 재정적자와 부채 총규모, 지출 총량을 유지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 실시, 재정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강도 강화 보장	적극적인 재정 정책 지속 실시. 적정 강도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강도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재정적자율	4% (예상)	4%	3%	3.8% (23년 10월 상향)
재정적자 규모		5.66조 위안	4.06조 위안	3.88조 위안
지방정부 특수채	4.4조 위안 내외 (예상)	4.4조 위안	3.9조 위안	3.8조 위안
특별국채		1.5조 위안 (그 중 3천억은 이구환신 지원) 및 5천억 위안 상업은행 자본 확충용	1조 위안	1조 위안 (23년 10월 추가 발행)
통화정책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 실시	온건한 통화 정책의 유연성, 적정성, 정밀성 및 유효성 유지	온건한 통화 정책의 정밀성 및 강도 유지
환율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에서 기본적 안정 유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에서 기본적 안정 유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에서 기본적 안정 유지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